

*處子恩津宋氏墓表

(前 面)

處子恩津宋氏之墓

(陰 記)

嗚呼此我殤姊之墓我宋出恩津 贈吏曹判書諱爾昌 贈貞夫人光州金氏卽我皇考妣 贈吏曹參判諱應瑞 贈貞夫人廣州李氏
卽我祖考妣行僉樞諱殷輝淑夫人海州崔氏卽我外祖考妣也姊氏以萬曆癸未生於魚第生而姿稟有絕異於人者稍有知蓋加修
飭性潔精陋汙之席不忍須臾處六親奇愛之我先妣之季父牧使公諱公輝其配丹陽禹氏取以育之壬辰倭變牧使公舉室避地於
湖西之定山時沙溪先生宰其縣先生卽我妣之從兄也姊氏在縣衙遭斑疹夭得年甫十歲噫短矣父母方在懷德第不及相訣尤可
哀也瘞於連山居正山卽我外祖考妣兆下也後七十餘歲崇禎丙午弟浚吉往省其墳見其頽圯已甚大懼愈久愈不克辨認乃築土
以封之仍立小石以識之庶後之人毋踐母夷也噫余旣早失怙恃終鮮兄弟臨老又喪獨男身世悲涼情理痛迫雖然死而有知幾何
而不相聚於泉下耶惟用是自慰嗚呼悲哉

時崇禎戊申正月 日

弟正憲大夫原任議政府左參贊兼成均館祭酒 世子侍講院贊善浚吉記并書

* 처자 은진송씨 묘표

(전 면)

처자 은진 송씨의묘

(음 기)

슬프도다, 여기는 우리 일찍 돌아간 누이의 산소이다. 우리 송씨는 은진에서 나왔는데, 증직 이조판서 이창과 증직 정부인 광산 김씨는 곧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증직 이조참판 응서와 증직 정부인 광주 이씨는 곧 우리 조부모요. 행 철주는 회와 숙부인 해주 최씨는 즉 우리 외조부모이다. 누이께서 만력 계미에 시골 집에서 낳았는데, 나면서부터 자품이 남보다 뛰어나게 다르고, 점점 배워 아는 것이 더하면서 더욱 닦고 닦아서 성품이 깨끗하고 정숙해서 더러운 자리에 잠시도 차마 앉지 못하니, 육친 1)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인 목사공 공휘와, 그 부인인 단양 우씨는 누이를 데려다가 같이 살며 길렀다.

임진왜란에 목사공이 온 집안이 호서의 정산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사계선생은 그 고을에 원님으로 있었다. 선생은 우리 어머니의 사촌 오빠이다. 누이는 고을 관사에 있을 때 홍역을 만나 일찍 죽으니 나이 겨우 10세였다. 슬프도다, 단명함이며, 부모님이 그 때 회덕의 집에 계셔서 서로 죽음을 보지 못했으니 더욱 애절한 일이었다. 연산의 거정산에 묻으니, 바로 우리 외조부모의 산소 밑이다. 그 후 70여 년이 지난 송정 병오년에 아우 인준길이 가서 그 무덤을 살펴보니 이미 그 무너져 파손됨이 심한 것을 보고, 더욱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분별할 수 없을 것을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이에 흙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이어서 작은 돌을 세워서 기록하니 뒤 사람들은 밟지 말고 뭇개지 말지니라.

슬프다. 내가 이미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가 별로 없는 내가 늘그막에 또 형제를 잃어서 독신이 된 남자로 신세가 비통하고 처량하며 인정과 도리가 애통하고 절박하다. 그러나, 비록 죽어서도 아는 것이 있다면 어찌하여 서로 지하에서 모이지 아니하겠는가. 다만 이것으로 스스로 위로하노라. 슬프고 슬프도다.

송정 무신 정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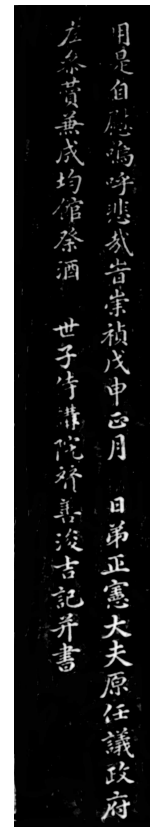
아우 정헌대부 원임 의정부 좌참찬 겸 성판관 제주 세자시강원 찬선 준길은 기록하고 쓰다.

① 육친 (六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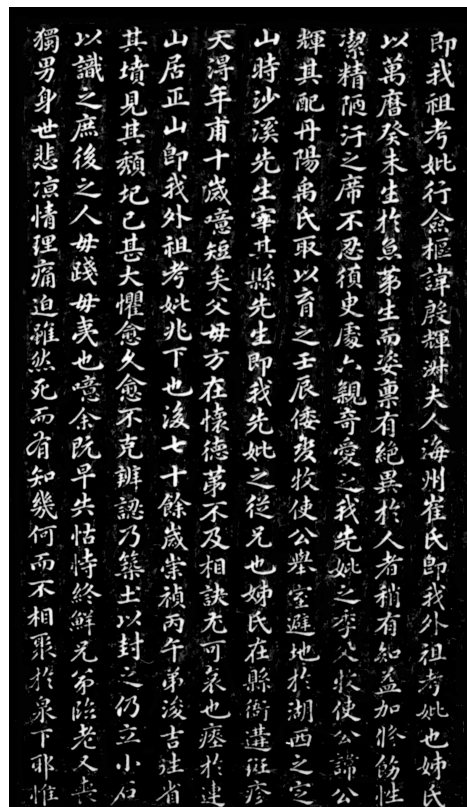
- 1) 부, 자, 형, 제, 부부.
- 2) 부, 자, 중부 형제, 종조 형제, 증조 형제, 족문제
- 3) 부자, 형제, 고매, 생구, 혼구, 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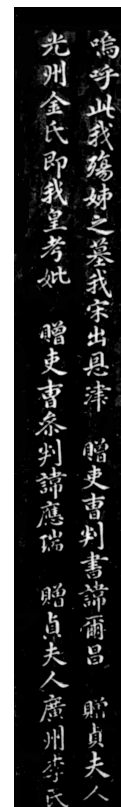
전면



측면



송처자 묘표. 후면



측면



송처자 묘표

9. 송 처자(宋處子) 묘표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거정터

연월일 | 서기 1668년 (현종 9년, 무신)

찬자 | 송준길(宋浚吉)

서자 | 송준길(宋浚吉)

비신 | 높이 | 82 cm, 폭 | 46 cm, 두께 | 14 cm

자경 | 전면 | 13 cm, 음기 | 3 cm

석질 | 오석

광산 김씨 선산에 송 처자의 묘와 묘표가 있다. 송 처자의 묘표는 10살의 나이에 요절한 처녀의 것이기에 주목이 간다. 동춘의 자매로서 후에 동춘이 세운 묘표이다. 이 묘표는 비신은 작지만 유명 서가의 찬병서로 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팔각 지붕 모양의 가침석과 농대석을 갖춘 중요한 자료이다.

처자 송씨는 동춘의 누이로 어려서부터 자품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었으며 정숙하여 육친의 총애를 받았다. 외가인 김은휘댁에 왔다가 임난을 만나 피란 길에서 질병을 얻어 요절하여 연산 김씨 묘역에 묻히게 되었다. 오라비인 동춘이 항상 애석하게 생각하고 오랜 세월 후에 묘표를 세운 것이다.

* 金有輝 墓表

(前 面)

贈通政大夫工曹參議行果毅校尉忠佐衛司直金公有輝之墓

贈淑夫人載寧李氏祔左

(後 面)

(篆 額)

贈參議金公墓碣銘

(陰 記)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工曹參議行果毅校尉忠佐衛司直金公墓碣銘竝序

公諱有輝字得天金氏系出新羅王子興光預知國將亂出遁光州子孫仍藉焉逮高麗連八世爲平章事入我 朝諱若采大司憲三世而至諱國光左議政光山府院君寔公之高祖也曾太父諱克羞忠勲經歷大父諱忠胤副護軍父諱鈞秉節校尉母潭陽鞠氏奉訓則世仁之女以嘉靖壬辰生公公父祖累代皆不祿早世公居家居資正副司直曰以養親年六十三寢疾終于家萬曆甲午葬高山縣獐項山中坐之原先兆也公天性仁厚友愛敦睦親戚鄉黨得其歡其沒也遠近來弔哭之哀盡焉庚申以公之孫坤寶應募輸兵器 贈公工曹參議公配李氏貫載寧奉事殷楫之女縣監璵之孫觀察使孟賢之曾孫賢有婦道先公一年生後四五年卒壽六十九祔于公墓男潔以泰陵參奉次淪次潑女適生員李大承潔男坤寶生員淪男坤紀女適李禹民潑男坤生員次坤厚坤坤瑞女適李士次適沈光胄李大承男鼎女適崔顗次適縣監鄭次適柳東奭曾孫男女四十餘人皆幼銘曰 光山之胄世閥蟬聯遙遙岸谷互遷公況下與並致養何用五鼎有于有孫振振其盛維躬不羸維後之慶

奉列大夫前行全羅道都事金集撰
族 孫 學 生 金太極書

孫男成均生員 金坤寶篆

崇禎四十年二月 日

* 김유휘 묘표

(전 면)

증통정대부 공조 참의 행과의 교위 충좌위 사직 김공 유휘의 묘
증숙부인 재령 이씨 부좌

(후 면)

(전 액)

증참의 김공 묘갈명

(음 기)

조선나라의 증직이 통정대부 공조 참의요, 행한 관직이 과의교
위 충좌위 사직인 김공 묘갈명 병서

공의 성명은 유휘이고 자는 득천이며, 김씨는 신라 왕자 흥광으
로부터 나왔다. 나라가 장차 전란이 있을 것을 예지하고 궁에서
나와 광주에 은거하여 그 자손들이 그곳으로 관직을 삼았다. 고려
때에 8대를 내려오면서 평장사를 지내고 조선조에 들어와 약채공
이 대사헌을 지내고 3대를 지나 국광공 좌의정 광산부원군이 공의
고조이다. 증조인 극수공은 충훈 경력을 지내고, 할아버지인 충
윤공은 부호군을 지내고, 아버지인 균공은 병절 교위를 지냈다.
어머니는 담양 국씨로 봉훈인 세인의 따님으로 공을 가정 임진년에
 낳았다. 마모

공은 63세에 병환으로 집에서 돌아가 만력 갑오년에 고산현
장항산① 선영 신좌 언덕에 장사하였다. 공은 천성이 인자하고

온후하며 우애가 깊고 친척들에게 화목하고 고향 친우들에게 기쁨
을 주더니 홀연히 돌아가니 원근에서 찾아와 조상하며 슬퍼하였
다. 공의 손자인 곤보가 응모 수병기로 있어 공에게 증직으로 공
조 참의를 주었다. 공의 부인은 재령 이씨로 봉사 은집의 따님이
고 현감 딸의 손녀이며 관찰사 맹현의 증손녀이다. 부인은 현숙한
부도가 있었으며 공보다 1년 먼저 낳고 공보다 4, 5년 후에
나이 69세로 돌아가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아들 결은 태능 참
봉이요, 차남 룬과 차남 발을 두고, 딸은 생원 이대승에게 출가
하였다. 결의 아들 곤보는 생원이요 룬의 아들은 곤기이고 딸은
이우민에게 출가하였다. 발의 아들 곤□는 생원이요 다음은 곤
후, 곤□, 곤서이며 장녀는 이□사에게 차녀는 심광주에게 출가
하였다. 이대승은 아들 정과 딸은 최의와 현감 정□□, 류동석에
게 출가하였다. 증손 남녀가 40여인인데 모두 어리다. 명하여
이르기를

광산의 후예들은 대대로 벼슬이 연이어지는 가문이 되고,
요요히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서로 옮기네.

공은 더불어 있네.

. 봉양하는데 어찌 다섯의 술에 진수를 쓸 것인가.
자녀를 두고 손자를 두어 그 융성함을 떨칠지라.

오직 몸은 끝없이 이어지고 후손에게는 경사만 있을지라.

봉렬대부 진행 전라도 도사 김 집이 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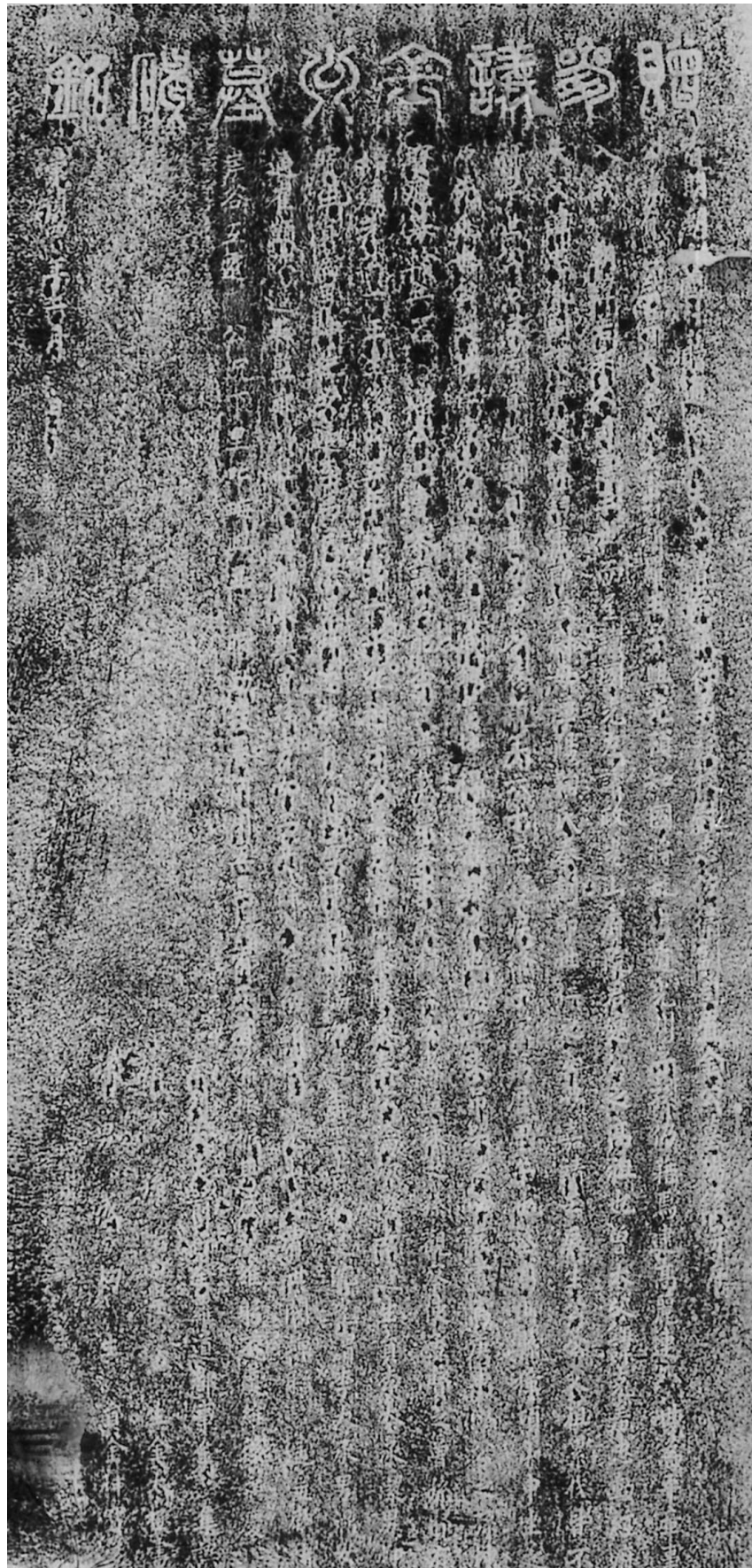
족 손 학 생 김태극이 쓰다.

손 자 성 균 생 원 김곤보가 전액을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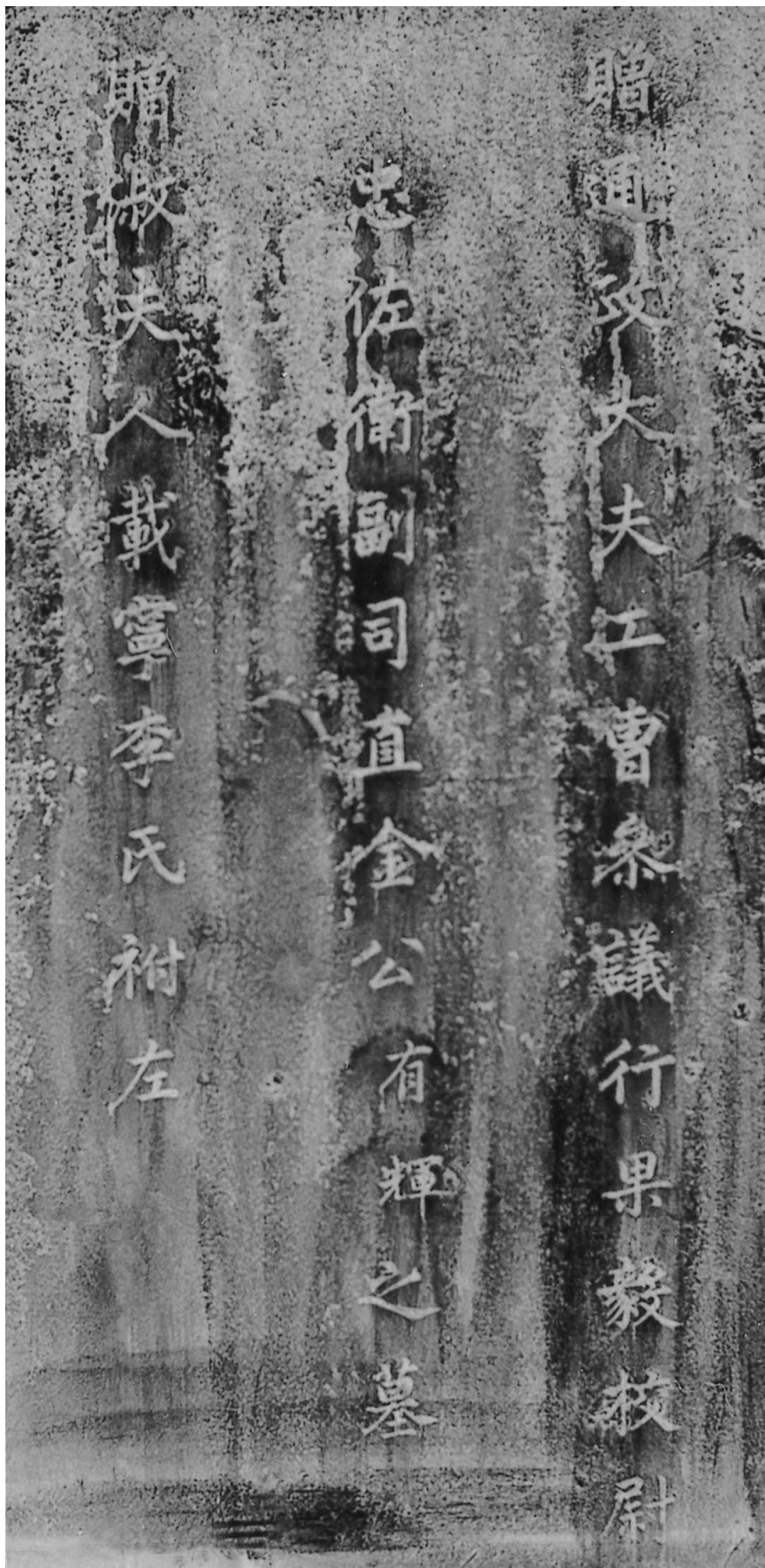
송정 40년 2월 일

(역 주)

① 고산현 장항산-현재는 양촌면 임화리 뒷산



김유희 묘표, 음기



김유희 묘표 전면



김유휘 묘표

8. 김유희(金有輝) 묘표

소재지 |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연월일 | 서기 1668(현종 9년, 무신)

찬자 | 김 집(金集)

서자 | 미상

비신 | 높이 112.5cm, 폭 65cm, 두께 21cm

자경 | 전면 5cm, 전액 5.5cm, 비문 1.6cm

석질 | 대리석

김유희의 묘표는 대리석 비신에 원두 형식을 하고 좌대인 농대석엔 상부에 연꽃을 조각하고 옆면에는 상안홀 조각하였다. 비의 석질이 대리석이어서 풍우로 많이 마모되어 있다. 전면에 작은 글자로 묘표 내용이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음기가 있으나 마모로 판독이 어렵다.

김유희는 광산인으로 벼슬이 부사직을 지내고 증직으로 공조 참의를 받았다.

*金集墓表

(前 面)

文敬公愼獨齋金先生集之墓

(陰 記)

孝宗大王嗣服之初慨然有大志寤寐賢德以圖事功而愼獨齋金先生首應聘焉時清陰金文正公以元老復入宋浚吉宋時烈諸公相與先後於是四方有識皆拭目以爲當有非常之舉旣而事乃大謬奔選四出而擘臣媒亂禍且不測六使北來中外震怖先生夷然不以爲意曰死生命也然先生自是益無意於世遂不復起而卒于家崇禎二十九年丙申也 上特命禮官庀葬賜諡文敬後六年辛丑今 上以先生並文正公配享 孝宗廟庭噫先生之學得之家庭而其淵源蓋出於李文成公文成公以命世之才任經濟之責若將有爲而天奪之速先生承其緒餘遭遇盛際同德彙征庶幾仰酬 聖志之萬一而卒於無成重爲志士之痛豈非天耶然大義昭揭士林聳動使天理民彝旣晦而復明則先生之道雖不行於一時其有功於萬世也大矣先生子益炯益煉等李惟泰與二三子嘗事老先生又獲從先生終始周旋俾記其實以表于墓旣不敢當亦不敢辭略述平日所聞見如此若其世系履歷學問本末子姓嫁娶已詳于碑狀中故此不復著云

門人月城後學李惟泰記

門人坡平後學尹宣舉書

崇禎紀元戊辰後三十五年壬寅七月 日。

* 김집 묘표

(전 면)

문경공 신독재 김선생 집의 묘.

(음 기)

효종대왕께서 즉위하고 처음부터 분연히 큰 뜻을 가지고, 자나 깨나 어진 덕으로 일과 공력을 도모하였다. 신독재 김선생이 가장 먼저 초빙에 따르고, 그때 청음 김문정공이 원로로서 다시 들어가고, 송준길, 송시열 제공이 서로 더불어 앞서고 뒤서서 들어갔다. 이에 사방에 있는 학식 있는 이가 모두 눈을 비비고 말하기를 마땅히 비상한 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그런 뒤에 일이 크게 어그러져서 달아나고 사방으로 흩어지니, 요망한 신하들이 난을 피하여 화를 또한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여섯 사신이 중국에서 오니, 안 밖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나 선생은 편안한 듯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명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이때부터 더욱 세상에 뜻이 없어 드디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집에서 돌아가니 송정 29년 병신년이었다.

임금이 특별히 예관을 보내어 정중히 장례를 지내고 시호를 문경이라고 하사하였다. 6년 뒤 신축년에 지금의 임금이 선생과 문정공(우암 송시열)을 효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슬표도다, 선생의 학문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연원은 이문성공(율곡 이이)에서 나왔으니 문성공은 「명세지재」①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 할 책임을 가지고 장차 떠나가려 하는데, 하늘이 이를 속히 빼앗아가 버렸다. 선생께서 그 뜻을 이어 받아 뜻 맞는 임금을 만나는 좋은 시대에 덕을 같이 하고 펼쳐

서 임금의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니, 거듭 뜻있는 선비의 통한이 되었다. 어찌 천운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대의가 밝게 높이 드러나고, 사림이 우뚝 솟아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윤리로 하여금 이미 어두운 곳을 다시 밝혔으니, 곧 선생의 도는 비록 한 때는 행치 못했으나, 그 공로는 만세까지 크리다.

선생의 아들 익형, 익련은 이유태와 두 서너 제자들과 함께 일찍이 노선생을 섬기고 또, 선생을 따르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잘 처리하니 그 사실들을 기록하여 묘소에 표기한다. 이미 감당치 못하면서 감히 사양치도 못하여 평소에 들은 것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만일 그 선대의 세계와 이력과 학문의 본말과 자손이 시집가고 장가 든 것은 이미 신도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여기서는 다시 저술하지 아니한다.

문인 월성 후학 이유태는 비문을 기록하고
문인 과평 후학 윤선거는 비문을 쓰다.

송정기원후 35년 임인 7월 일. (AD 1662년)

(역 주)

① 명세지재 (命世之才) — 세상을 바로 잡아 건질 만한 큰 인제.

孝宗大王嗣服之初慨然有大志寤寐賢德以圖事功而慎獨齋金先生
 應聘焉時清陰金文正公以元老復入朝後言宋時烈諸公相與光復
 於是四方有識皆拭目以為當有非常之舉既而事乃大謀卒逆四出而
 孽臣媒亂禍且不測六使赴東中外震悼先生夷然不以為意曰先生命
 也然先生自是蓋無意於世遂不復起而卒于家崇禎二十九年丙申也
 上特命禮官在英賜謚文敬後六年辛丑今上以先生立文正公配
 享 孝宗廟庭噫先生之學得之家卷而其淵源蓋出於李文成公文成
 公以命世之才任經濟之責若將有為而天奪之速先生承其緒餘遭遇
 盛際同德彙征庶幾仰酬 聖志之萬一而卒於無成重為志士之痛豈
 非天邪然大義昭揭士林澤動使天理民彝既晦而復明則先生之道雖
 不行於一時其有功於萬世也大矣先生子益炯益棟等以惟崇與二三
 子嘗事老先生又獲從先生終始周旋俾記其實以表于墓誌不敢當而
 不敢辭畧述平日所聞見如此若其世系履歷學問家末子姓嫁娶已詳
 于碑狀中故此不復著云
 崇禎紀元戊辰歲三十五年壬寅七月 日 門人坡平後學李惟泰記

김집 묘표, 음기

文敬公慎獨齋金先生集之墓

(전면)



김집 묘표

7. 김 집(金集) 묘표

소재지 -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구고운

연월일 - 1662년(현종 3년, 임인)

찬자 - 이유태(李惟泰)

서자 - 윤선거(尹宣舉)

비신 높이 - 102 cm

폭 - 64 cm

두께 - 25 cm

자경 전면 - 6·5 cm

음기 - 2·3 cm

석질 - 철광석

김 집의 묘소는 한삼내 일구의 느티나무 옆으로 구고운 계곡을 약 2km 쫓 올라가 옛날 고운사터에 재실이 있고 재실 뒤 산을 부도 말 위에 있다. 신도비는 묘에서 왼쪽 산길로 백여 미터 내려와 계곡 속에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 묘표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돌로 철분이 표면에 산화되어 붉은 색을 띄고 있다. 귀접이 비신과 연화문을 조각한 농대석 위에 세워져 있다. 고운사터는 전에 황강선생이 정화당을 이곳에 설치하고 후학들에게 강론하던 곳이기도 하다.

신도재 김 집 선생은 그의 호에서 나타나듯이 스스로 경계하기를 차라리 낮은데 처할지언정 높은데 하지 말고 어수룩 할지언정 잘란 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평소 근신하기를 중국의 서산 진덕수의 말을 빌어 「혼자 있을 때에 그림자에게 부끄럽지 않고 혼자 잠을 잘 때에도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신독」이라고 자호를 정하였다.

令執義諫院正言司諫大司諫史館兼記事記注編修外則督郵居山泛事統制檢察通判水原北青守靈光尹全州此其敷歷之暨也
 既歿以扈 駕賞進階嘉善公天性莊重純粹外和內剛孝友敦睦出於至誠素有經濟志常以盡忠補過爲己任處帷幄規益掌銓注
 公允莅郡邑常敬其在言地尤抗直不撓平居循循雅飭至當 朝廷大義慷慨奮發風采聳動人擬公及長孺胡邦衡噫若公眞所謂
 古之遺直經德不回者歟配昌寧成氏祖諱守琛聽松先生考諱渾牛溪先生生長禮法教與性成淑慎敬畏克配君子以壬申四月九
 日生戊子九月晦日卒于子舜舉安陰任所有五男二女男長勛舉次舜舉商舉文學宣舉女壻李正興權携側室三男民舉耕舉時舉
 一女崔魯詹妾內外諸孫七十人吁盛矣既葬諸孤泣命槨識墓表槨實與諸孤有兄弟誼昔公之行遣也槨亦忝齒黨籍生平慕御公
 不與別人等嗚呼安敢辭謹記其萬一以題其陰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春秋館記注官 俞槩 撰

* 尹煌墓表

(前面 大字)

大司諫坡平尹公諱煌之墓

貞夫人昌寧成氏祔左

(前面 下段 小字)

勛舉縣監二男扑摠二女李相夔朴尙綱 舜舉三男哲摠摠 商舉洗馬男播三女金碩昌李慶萬崔載翁 文學承旨二男搏掄五女李舜岳崔世慶李顥餘幼 宣學師傅二男拯推一女朴世垕 李正興生員繼子敏迪 權携佐郎三男恕志愍五女朴銑成成秀童餘幼 民舉進士三男三女 耕學生員二男二女 時舉二男一女幼 崔有一女扑三男二女 敬教誠教餘幼

(陰記)

有明朝鮮國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尹公墓表陰記

崇禎紀元戊辰後二十三年辛卯

子舜舉敬書

國家自啓西轡行成於丁卯受盟於丁丑時則杭大義持正論終始以爲不可者八松尹公其人也 在丁卯公貳諫省極言和之非有名和實降等語 上命削職編配賴言者得已遂丙子公長諫省復極言大驚動振作之道至請焚行官進駐以示必戰心章五六上竟不省當南漢圍急主事者將縛送斥和人公請自行不許 車駕還都以公先事見爲垂禍讖 命謫永同縣未踰年而有以己卯六月四日易責于尼山丙舍初從先兆葬越十年夫人之祔也啓竈有水改命龜食長男墓上向西之原去先兆數里所用是年十二月癸巳合葬焉 公諱煌字德耀自號八松坡平人麗朝侍中權之後高祖諱倬同知成均曾祖諱先智節度使祖諱噉 贈承旨考諱昌世 贈參判妣清州慶氏副提學渾之女以隆慶辛未十一月丙子生公丁酉擢文科歷試內外內則槐院正字至博士諸曹禮兵刑郎吏兵參議各司太常僉正軍資軍器司宰司尙衣正國子典籍直講司成大司成政府舍人春坊輔德玉堂修撰校理應教銀臺同副至左副憲府監察

좌부에 이르고 헌부의 감찰·장령·집의와 사간원의 정언·사간·대사간과 사관에서 가사와 기주·편수를 겸하고 밖으로는 거산의 독우와 통제·검찰에 종사하고 수원·북청에서 통관을 지내고, 영광의 군수와 전주 부윤을 역임하였으니, 이것이 그 경력의 대개이다. 돌아간 뒤에 어가를 호가한 상으로써 가선대부로 품계가 올랐다.

공은 천성이 장중하고 순수해서 밖으로는 화하고 안으로는 강하며 효도하고 우애하며 화목을 이룬 것은 지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본래 경국제에 뜻이 있어서 항상 충성을 다하고, 허물을 보완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서 조정안에서는 법규를 이롭게 하고 인사를 맡으면 공정히 하여 믿음 있게 하였다. 고을에 부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 하였다. 언관에 있을 때에는 더욱 강직하고 요란하지 아니하고, 평소에는 순순하고 아담하며 근면하고 지당하여 조정의 큰 의논에 강개 분발하여 풍채가 솟아나니, 사람들이 공을 급장유②와 호방형③에 비유하였다. 슬프도다. 공과 같은 이는 참으로 옛적의 정직한 것을 남겨두고, 덕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인가 보다.

부인 창녕 성씨의 할아버지는 수침이니 청송선생이요 아버지는 혼이니 우계선생이다. 예법 속에서 낳고 자라서, 가르침이 성품으로 이루어져서 맑고 삼가하고 공경하고 경외하여 군자의 배필이 되었다. 임신년 4월 9일에 낳아 무자년 9월 그믐날에 그에 아들 순거의 그무지인 안음에서 돌아왔다. 5남 2녀를 두니 장남은 윤거요, 다음은 순거·상거·문거·선거요 사위는 이정여·권준이요 측실에서 삼남을 두니 민거·경거·시거요, 딸은 하나로 사위는 최노침이다. 첩과 내·외 제손이 칠십여인이니 아아! 성하도다. 장사를 지낸 뒤에 여러 자손들이 울면서 나에게 묘표를 지어 줄 것을 부탁하니, 나는 계는 실로 여러 자손들과 형제의 의가

있고, 지난날 공이 귀양 갔을 때에 나도 또한 당직에 함께 하여 평생토록 사모하고 우러러 보니, 공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다. 오호라.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삼가 그 만분의 일들을 기록해서 그 비움에 쓰노라.
통훈대부 행 홍문과 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 춘추관 기주관 유계는 찬한다.

(역 주)

① 거북이가 산다(龜食)：명당 자리에 거북이가 산다는 풍수설。

② 급장유(汲長孺)：汲黯은 한인으로 자가 長孺이다. 한나라 사직을 지킨 신하。

(漢) 人性倨少禮 好游俠 尚氣節 景帝時爲太子洗馬 以嚴見憚 武帝卽位爲謁者 往視河內火災 以使宜發倉粟 賑民 出爲陳海太守 以清靜治民 東海大治 召爲主爵都尉 以數直諫 不得久居位 帝嘗問嚴助曰 汲黯何如人 他日使黯任職居官 無以踰人 至其輔少主 成雖自謂 賁育不能過也 帝曰 古有社稷之臣 黯近之矣 後爲淮陽太守 居十歲而卒 見史記

③ 호방형(胡邦衡)：胡銓은 송나라 사람으로 자가 邦衡이다. 호는 澹菴齋老人이다。

(宋) 廬陵人 字邦衡 號澹菴齋老人 舉建炎進士 任樞密院編修官 上疏乞斬王倫 奏檜孫近三人 頭懸之藥街 好事者鋸木傳之 金人募其書 千金 檜怒其逆 已 除名 編管新州 乾道中人爲工部侍郎 以資政殿學士 致仕 卒 諡忠簡 著有澹菴集一百卷 見宋史

*윤형 묘표

(전면대자)

대사간 파령윤공 휘 황지묘.
정부인 창녕성씨 부좌

(전면하단 추가)

훈거는 현감이요. 두 아들은 변과 현이요. 두 딸 사위는 이상기·박상경이다. 순거의 세 아들은 철·진·기이요, 순거는 세 마니 아들은 파이요, 세 딸 사위는 김석창·이경만·최재용이요, 문거는 승지이니, 두 아들은 박·륜이요, 다섯 딸은 이순악·최세경·이웅에게 시집가고, 나머지 세 아들은 서·지·부니 두 아들은 증과 추요 딸은 박세후에게 출가하였다. 이정여는 생원이니 계자는 민적이다. 권준은 좌랑이니 세 아들은 서·지·민이요, 5녀를 두니, 박선·성수동이 사위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민거는 진사이니 3남 5녀를 두었고, 경거는 생원이니, 2남 2녀를 두었고, 시거는 2남 1녀를 두었는데 어리다. 최씨는 일녀를 두었다. 변은 3남 2녀를 두고, 경교·성교와 나머지는 어리다.

(음 기)

유명조선국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 윤공 묘표 음기
승정기원 무진년 후 23년 신묘년에 아들 순거 삼가 쓰다.

나라에 서쪽의 난리가 시작되고부터 실행은 정묘년에 이루어지고, 맹약은 정축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대의에 항거하고 정론

을 가지고 시종 불가하다고 말한 사람은 팔송 윤공 그 사람이다. 정묘년에 공이 사간으로 있으면서 화친을 맺을 수 있는 명목이 있지 않으면 화친은 실은 항복이라고 극열하게 말해서, 임금이 사직을 명하고 귀양을 보내게 되었는데, 변론한 이들의 힘을 입어 그 만두게 되었다. 병자년에 공이 대사간이 되어 다시 크게 경계하고 깨우쳐 일으키는 방법을 극진히 말하기를 행궁을 불사르고 진격해서 반드시 싸울 것을 나타내는 마음의 글을 5·6차례 올렸으나 마침내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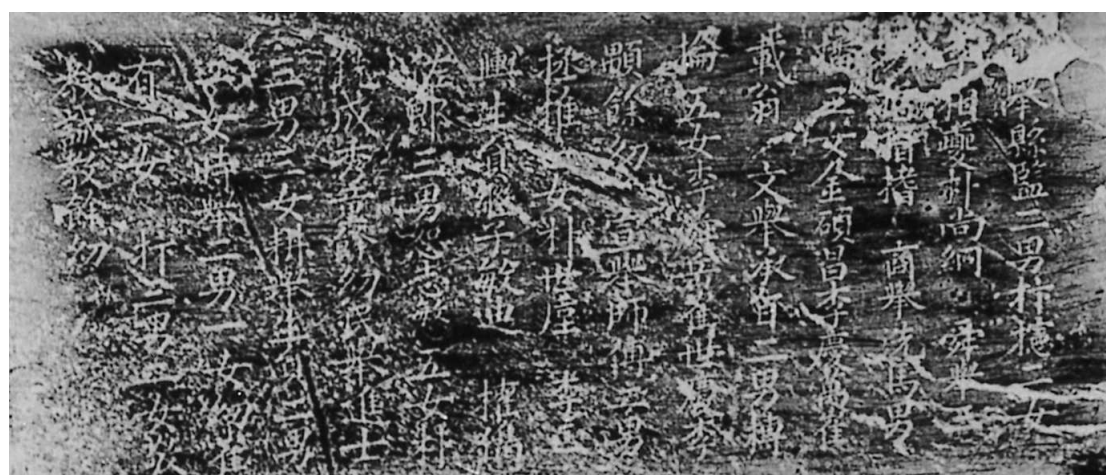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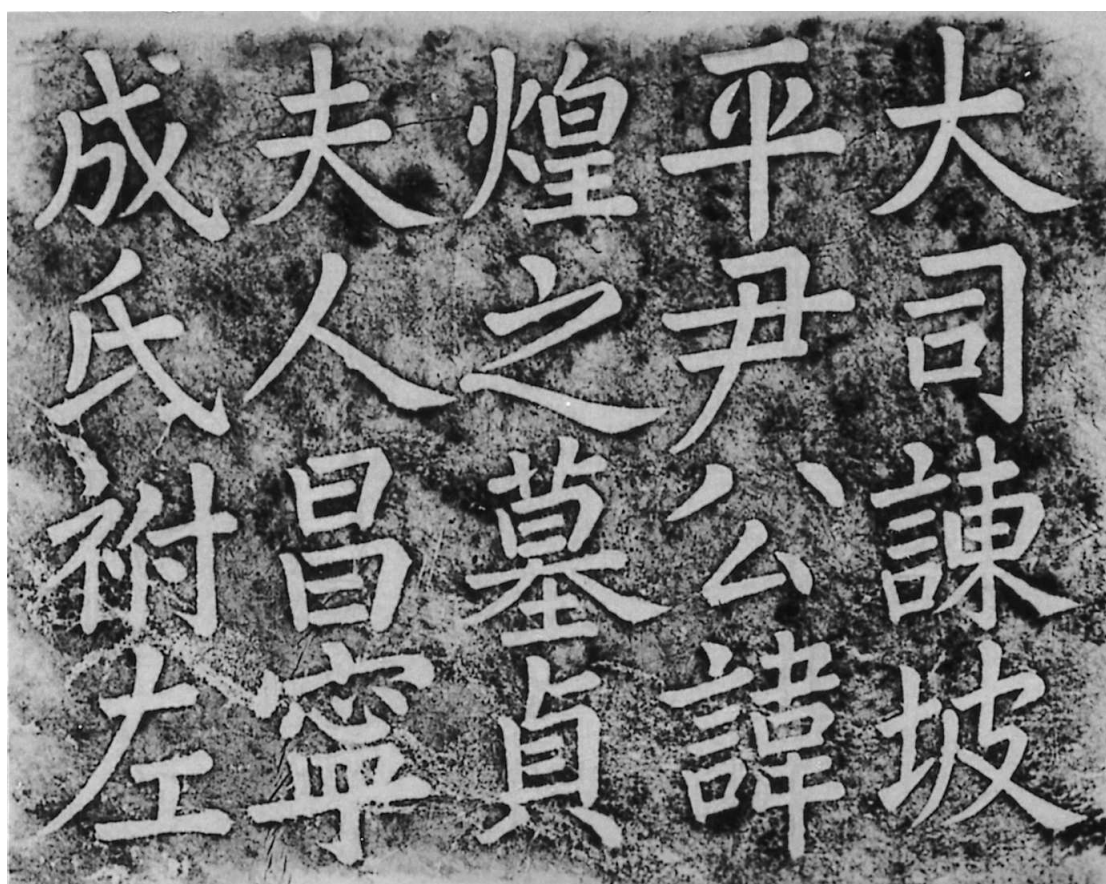
남한산성이 에워싸여 위급함을 당하자, 정사를 맡은 관리가 장차 최화인들을 묶어 청나라로 송치하려 하니, 공이 스스로 가기를 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아니하니, 어가가 환도하여, 공이 먼저 일을 드러냄으로 화근이 되었다 하여 영동현에 귀양을 명하였는데, 일년이 못되어 풀리고, 기묘년 6월 4일에 니산의 자택에서 돌아갔다. 처음에는 선영하에 장사지냈다가 십년 뒤에 부인을 합필할 때, 무덤을 열으니 물이 있어서 거북이 산다①는 장남 무덤 위 유향의 언덕, 선영 산소에서 수리가 떨어진 곳에 다시 이장해서 이해 12월 계사에 합장하였다.

공의 휘는 황이요, 자는 더휘요. 스스로 호를 팔송이라 하였는데, 파평인이다. 여조 때 시중 관의 후손으로 고조는 탁이니 동지성균이요, 증조는 선지니 절도사요, 할아버지는 돈이니 증승지요, 아버지는 창세이니 증 참참이요, 어머니는 청주 경씨니 부제학 혼의 따님이다. 융경 신미 12월 병자에 공을 낳았다.

정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팎으로 두루 역임하였는데, 안으로는 승문원의 정자에서 박사에게 이르니, 여러 예·병·형조의 낭관과 이조·병조의 참의와 각 사의 태상과 첨정과 군자·군기·사재·사용·상의정과 국자의 전직·직강·사성·대사성과 정부사인과 춘방 보덕과 옥의 수찬·교리·응교와 은대의 동부로부터

先生沒後 孝廟甲午樹表石 顯廟辛丑立旌碑墓隧之事蓋無憾矣茅表石有橫理歲久漸防
 子孫懼中拆議改豎顧舊石未折亦不宜遽而易也乃具石摹刻之立于墓左蓋石體方而大宜倚
 不宜前假兩石俱存尤足以傳示無疆此義起也石既成敢記碑表未及載者在 肅廟己丑用筵
 臣言退獎先生并和節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
 館觀象監事 世子師謚文正章甫又建院所居鄉 命賜額致祭 聖朝褒崇脩矣成夫人從
 贈貞敬夫人子姓蕃以昌今五六世殆三百餘人其以道德文學為世聞人者十數云
 崇禎後三辛丑三月 日 五代孫前兵曹叅判光紹謹記 玄孫東休敬書

有明朝鮮國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尹公墓表陰記
崇禎紀元戊辰之歲二十三年辛卯 子舜舉敬書
國家自啓西釁行成於丁卯受盟於丁丑時則杭大義持正論終始以為不可者八松尹公其人也在于卯公武
諫省極言和之非有名和實降等語 上命削職編配賴言者得已逮丙子公長諫省復極言大警動振作之
道至請焚 行宮進駐以示必戰心章五六上竟不省當南漢圍急主事者將縛送序和人公請自行不許 車
駕還都以公先事見為珥衲識 命謫永同縣未踰年而宥以已卯六月四日公薨于尼山內舍初從先兆葬越
十年夫人之祔也啓窀穸有水改命龜食長男墓上向酉之原去先也數里所用是年十二月癸巳合葬焉公諱煌
字德耀自號八松坡平人麗朝侍中瓘之後高祖諱倬同知成均曾祖諱先智節度使祖諱曠 贈承 考諱
昌世 贈叅判妣清州慶氏副提學渾之女以隆慶辛未十一月丙子生公丁酉擢文科歷試內外內則總院正
字至博士諸曹禮兵刑郎吏兵參議各司太常僉正軍資軍器司宰司 授正國子典籍直講司成大司成政
府舍人春坊輔德玉堂修撰校理應教銀臺同副至左副憲府監察掌令 諫院正言司諫大司諫史館書記
事記注編修外則督郵居山浸事統制檢察通判水原北青守靈光尹全州 其數歷之際也既歿以扈 駕賞
進階嘉善公天性莊重純粹粹外和內剛孝友敦睦出於至誠素有經濟志常以盡忠補過為己任處惟憂現益掌
銓注公允莅郡邑常取其言地尤抗直不撓平居循循雅飭至嘗 朝廷大議慷慨奮發風采奮動人擬公及
長孺胡邦衡噫若公真所謂古之遺直經德不回者歟配昌寧成氏祖諱守琛聽松先生考諱渾牛溪先生生長
禮法教與性成淑慎敬畏克配君子以壬申四月九日生戊子九月晦日卒于平壤安陰任所有五男二女男
長勛舉次舜舉商舉文舉宣舉女壻李正興權僑側室三男民舉耕舉時舉一女崔曾詹妾內外諸孫七十人子
盛矣既葬諸孤泣命祭識墓表祭實與諸孤有兄弟誼昔公之行遣也祭亦忝齒黨籍生平集公不與別人爭
鳴等安敢僻謹記其萬一以題其陰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 教無 經筵侍讀春秋館記注官俞路撰



윤희 묘표. 전면



윤항 묘표

6. 윤황(尹 煌) 묘표

소재지-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연월일- 1651년(효종 2년, 신묘)

찬자- 유계(兪 槩)

서자- 윤순거(尹 舜擧)

비신 높이- 109 cm

폭- 63 cm

두께- 25 cm

자경 전면- 8·5 cm

음기- 2·3 cm

석질- 대리석

윤황의 묘표는 원두형에서 벗어나 가첨석을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묘표이면서 크기는 묘 앞이라서 작은 비석이지만 가첨석에 농대석을 갖추고 있으며 사면에 비문을 기록해 놓고 있다. 묘전 방에 묘비가 신도비 크기로 있다.

그의 호는 팔송이고 시호는 문충이다. 사계의 문인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곧은 선비로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병자호란의 와중에서도 끝까지 화친을 반대하여 척화신으로 이름이 올랐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천으로 귀양을 갔었다.

* 尹昌世 墓表

(前面)

贈嘉善大夫吏曹參議孝廉尹公之墓

貞夫人清州慶氏祔

(陰記)

公諱昌世字興伯嘉靖癸卯生萬曆癸巳卒配慶氏副提學渾之女子燧煌烜燭燿燿燿燿朴謹宋熙祚孫勛舜元商雲文仲成叔鴻宣溟海鳳季後民耕時學曾孫五十餘公之行誼出乎古人而不得其位壽既歿四十年始以煌貴贈參判詳在碑誌
崇禎甲戌秋

孫男進士舜舉書

舊表圯傷不可傳久立碑後一百十四年丁卯春改豎新石而陰陽面大小字並摹元本入刻焉

玄孫懋教識

*윤창세 묘표

(전 면)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효렴 윤공의 묘
정부인 청주 경씨 합평

(음 기)

공의 이름은 창세이요, 자는 흥백이며 가정 계묘년에 낳아 만력 계사년에 돌아갔다. 부인 경씨는 부제학 혼의 따님이다. 아들은 수, 황, 전, 흡, 계이고 사위는 박심, 송희조이요 손자는 훈거, 순거, 원거, 상거, 운거, 문거, 중거, 성거, 숙거, 홍거, 선거, 명거, 해거, 봉거, 계거, 후거, 민거, 경거, 시거이요 증손이 50여명이다. 공의 행위가 고인보다 뛰어났으나 그 지위와 수를 얻지 못하였다. 돌아간지 40여년에 비로써 황이 귀하게 되어 참판에 증직 되었고 자세한 것은 비지에 자세히 적혀 있다.

승정 갑술 가을

손남 진사 순거는 쓰다.

옛 표석이 갈라지고 상해서 오래 보존 할 수가 없어 처음 비를 세운지 114년 정묘년 봄에 세 비석을 다시 세웠는데, 앞 뒤의 크고 작은 글씨는 모두 원본을 그대로 모각한 것이다.

현손 무교는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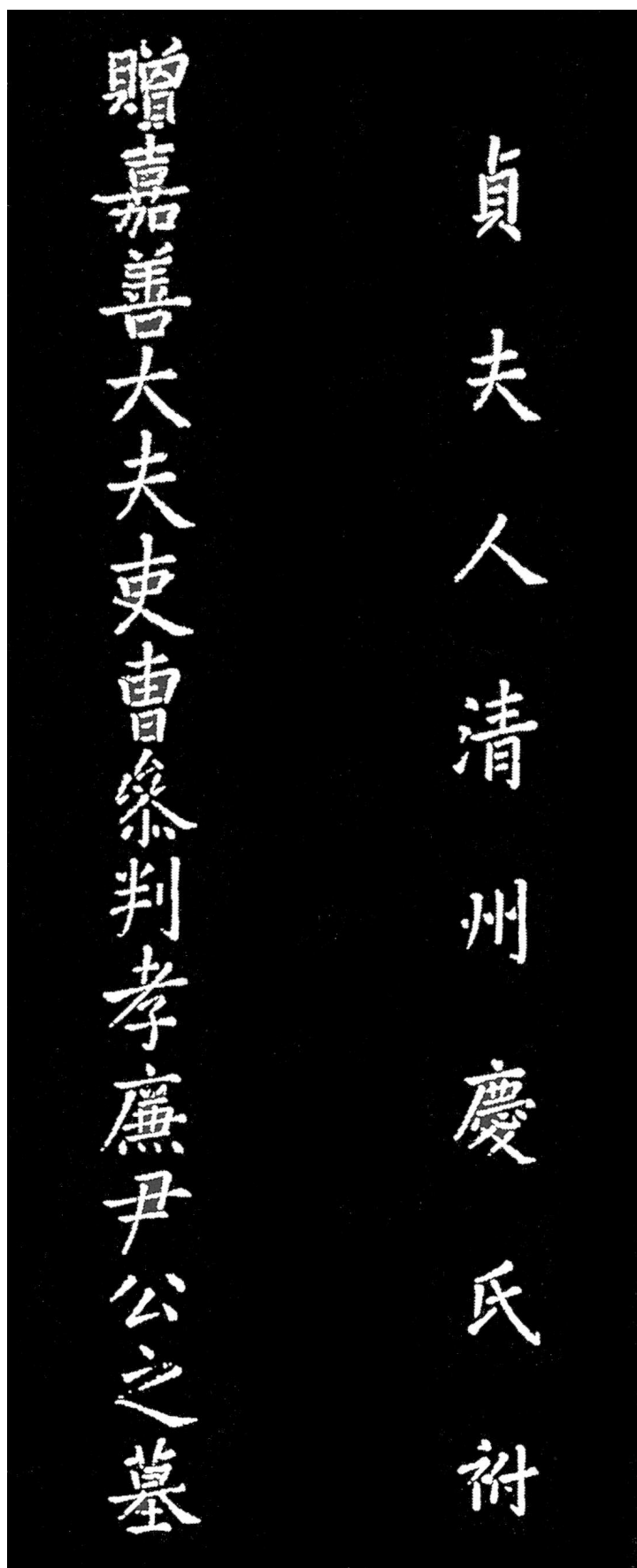
公諱昌世字興伯嘉靖癸卯生萬曆癸巳卒配慶氏副提學渾之女
子燧煌燿燿桂壻朴諶宋熙祚孫勛舜元商雲文仲成叔鴻宣溟海
鳳季後民耕時舉曾孫五十餘公之行誼出乎古人而不得其位壽
既歿四十年始以煌貴 贈叅判詳在碑誌

崇禎甲戌秋

孫男進士 舜舉書

舊表所傷不可傳久立碑後一百十四年丁卯春改豎新石而
陰陽面大小字並摹元本八刻焉

玄孫 懋教識



윤창세 묘표



윤창세 묘표

5. 윤창세(尹昌世) 묘표

소재지 |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연월일 | 1634년(인조 12년, 갑술)

찬자 | 윤무교(尹懋敎)

서자 | 윤순거(尹舜舉)

비신 | 높이 | 130 cm

폭 | 60 cm

두께 | 22 cm

자경 | 전면 | 7 cm

음기 | 2·5 cm

석질 | 화강암

윤창세의 묘는 아버지인 윤돈의 묘 아래 있으며 묘표는 1634년에 세웠으나 오랜 세월로 마모되고 비신이 손상되어 1747년에 새로운 돌을 마련하고 원표의 비문을 탐본을 떼서 그대로 번각하여 세웠다. 묘표는 원두형을 취하고 있으며 저수지 옆에 큰 묘갈이 있어 간략하게 세계만 기록하였다.

그의 호는 효렴이고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모두 현달하여 집안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때의 병으로 출정하여 팔자군에 합세하여 적과 싸우다가 진중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 柳淵墓表

(前 面)

通政大夫柳公之墓

夫人南陽洪氏 祔

(陰 記)

公諱淵高麗丞相車達之後以年耆階通政子瑞鳳無嗣女長適韓汝獻生孝誠次尹噉生昌世昌世恤其觀事既卜先垂於此自青林遷厝焉

* 유 연 묘 표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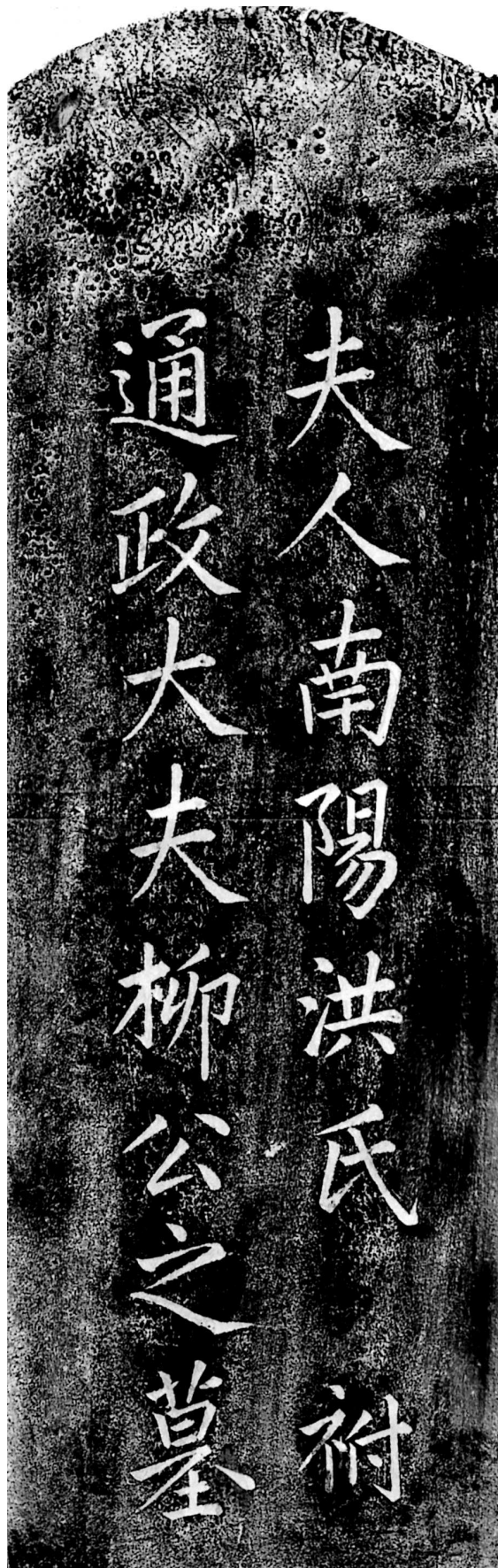
통정대부 유공지묘
부인 남양 홍씨 부

(음 기)

공의 이름은 연이요 고려 승상 차달의 후예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품계가 통정대부에 오른다. 아들 서봉은 후사가 없고, 큰 딸은 한여현에게 출가하여 효성을 낳고, 차녀는 윤돈에게 출가하여 창세를 두니, 창세가 그 외가 일을 돌보아서 이미 여기에 묘소를 정하고 청림에서 이곳으로 옮겨 장사하였다.



류연 묘표.음기



류연 묘표



류연 묘표

4. 류 연(柳淵) 묘표

소재지 |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연월일 | 서기 1630년대

찬자 | 미상

서자 | 미상

비신 | 높이 | 140 cm

폭 | 64 cm

두께 | 16 cm

자경 | 전면 | 7 cm

음기 | 3 cm

석질 | 대리석

류연의 묘표는 대리석 비신은 원두이며 상안holes 조각한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엔 묘표 내용을 새겨 놓았고 후면에는 자손에 관한 간단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류연은 통정대부를 지내고 니산 병사리에 낙향하여 살았다. 슬하에 둔 아들 서봉에게 후사가 없었다. 두 따님을 두었는데, 한 분은 청주 한씨에게로 출가하고 한 분은 과평 윤씨에게로 출가하여 재산을 두 딸에게 분재하였다. 병사리 윤씨 천에는 류연의 묘와 큰 사위 한여현의 묘와 작은 사위 윤돈의 묘가 있다.

*金宗胤墓表

(前 面)

贈通政大夫兵曹參議行通訓大夫珍山郡守金公之墓

淑夫人靈山辛氏 附左

(陰 記)

公諱宗胤字宗之姓金氏系出光州新羅後也世爲大官入我 朝諱若采爲觀察使是公五代祖也父大司諫克忸祖敵愾佐理功臣左議政光山府院君國光曾祖 贈光城府院君鐵山外祖監察朴肄配靈山辛氏豐儲倉守諱禹鼎之女以蔭補翊贊又爲察訪轉監察歷洪州判官至珍山郡守生于成化壬辰沒于嘉靖乙未與夫人合葬于連山牛頭里兌坐震向之原有四男郡守錫次別提鍾次贈參判鎬次護軍鍛郡守繼子縣令殷輝別提子應輝信輝彥輝之輝女韓守佑及第權通李明秀參判子大司憲繼輝縣令殷輝別提立輝察訪公輝女李欽蔡有根護軍子振輝重輝縣令復輝女李廷孝李夢瑞殷輝女正字姜燦宋爾昌應輝子大生達生信輝女李鈇權通子夢龍李明秀子友善女金質秀繼輝子參奉長生女鄭起溟立輝子吉生善蔡有根子泓女尹世貞重輝子晚生女呂勗復輝子泰生慶生長生子櫟集櫟噫公自少業文性厚行備宜若大施於世而不得焉德種於後昆而若是其蕃昌終以孫大憲貴追 贈兵曹參議卒封淑夫人豈無報歟公沒後四十九年孫殷輝略述顛末以識

萬曆十一年 五月 日立

* 김중윤 묘표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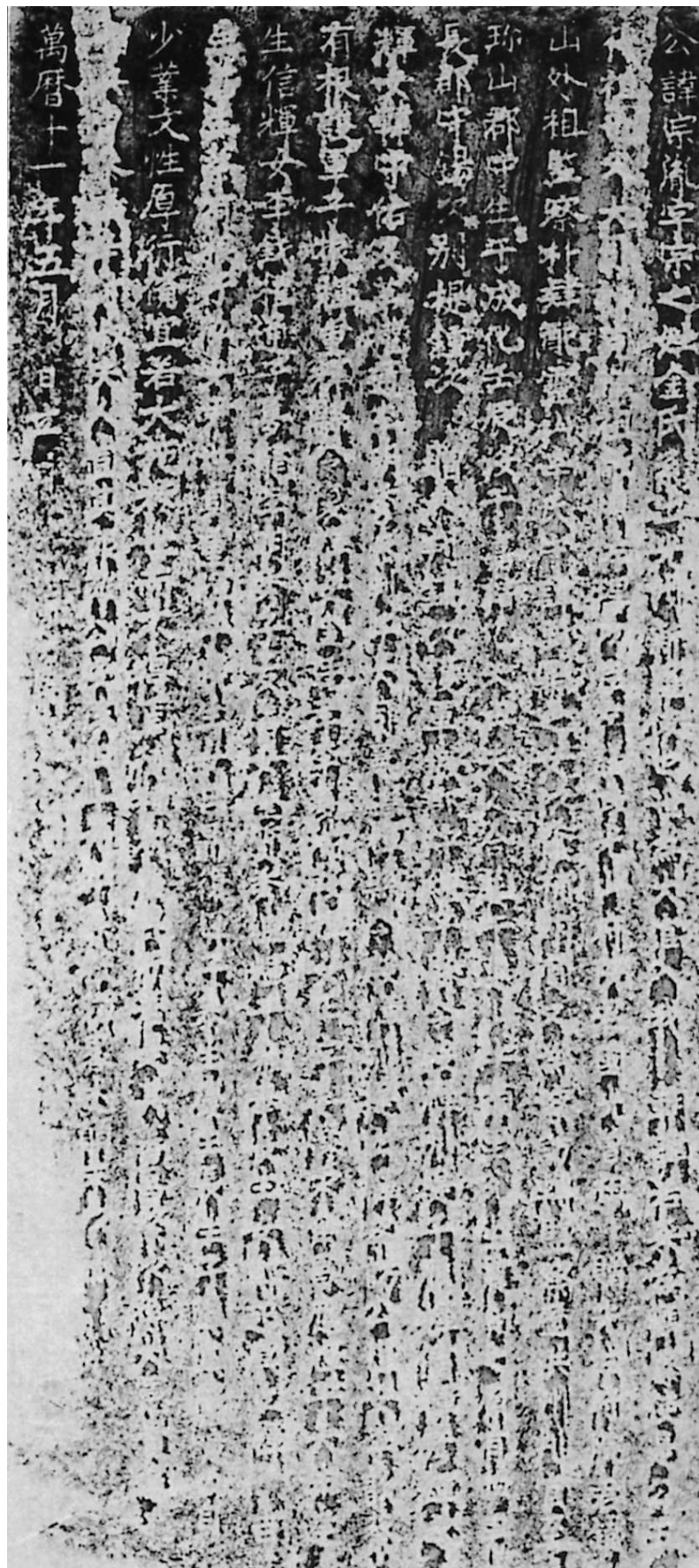
증통정대부병조참의행통훈대부진산군수김공지묘
 숙부인영산신씨 부좌

(음 기)

공의 휘는 중윤이고, 자는 종지이며 서은 김씨요, 세계는 광주에서 나왔고 신라의 후예이다. 대대로 큰 벼슬을 하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약채는 관찰사를 지냈는데 공의 5대조이다. 아버지는 대사간을 지낸 극복이요, 할아버지는 적개좌리공신 좌의정광산부원군국광이요, 증조는 증광성부원군인 철산이다. 외할아버지는 감찰 박이요, 부인은 영산 신씨로 풍저창수 우정의 따님이요, 음보로 익찬에 나아가고 또 찰방을 지냈으며 감찰로 전직하고 홍주 판관을 거쳐 진산 군수에 이르다. 성화 임진에 태어나 가정을 미에 돌아가 부인과 더불어 연산 쇠머리 태좌 진향 언덕에 합장하였다. 4남을 두니 장남은 군수 석이요, 차남은 별제 종이요, 다음은 증 참관인 호이요, 다음은 호군 단인데 군수에게 양자로 가서 아들 현령 은휘를 두다. 별제의 아들은 응휘, 신휘, 언휘, 지휘를 두고 딸은 한수우와 급제 권통과 이명수에게 출가하였다. 참관의 아들은 대사헌 계휘, 현령 은휘, 별제 입휘, 찰방 공휘를 두고, 딸은 이흠과 채유근에게 출가하였다. 호군의 아들은 진휘, 중휘, 현령 복휘를 두고, 딸은 이정효와 이몽서에게 출가하였다. 은휘의 딸은 정자 강찬 그리고 송이창에게 출가하였다. 응휘의 아들은 대생, 달생을 두고, 신휘의 딸은 이익에게 출가하였다. 권통은 아들 몽룡을 두고, 이명수는 아들 우선을

두고, 딸은 김질수에게 출가하였다. 계휘는 아들 참봉 장생을 두고 딸은 정명홍에게 출가하였다. 입휘는 아들 길생과 선생을 두고, 채유근은 아들 홍을 두고 딸은 윤세정에게 출가하였다. 중휘는 아들 만생을 두고 딸은 여옥에게 출가하였다. 복휘는 아들 태생, 경생을 두고, 장생은 은, 집, 반 등을 두었다. 슬프도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쓰고, 성품이 후덕하고 행동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마땅히 세상에 크게 베풀었으나 얻는 것은 없었다. 후세에 덕을 심어 번창함에 이르렀다. 후손이 대사현으로 귀하게 되니, 공은 병조참의로 추증되고 부인은 숙부인으로 봉하였다. 이 어찌 보응이 없다 하겠는가. 공이 돌아가간지 49년에 손 은휘가 공의 일생 전말을 약술하여 기록한다.

만력 11년 5월 일 세움.



김중윤 묘표, 음기

公諱宗胤字宗之姓金氏系出光州新羅後也世為大官八我朝諱若采為觀察使是公五代祖也父大司諫克忬祖敵愾佐理功臣左議政光山府院君國光曾祖 贈光城府院君鐵山外祖監察朴隸配靈山辛氏豐儲倉守諱禹鼎之女以蔭補翊贊又為察訪轉監察歷洪州判官至珍山郡守生于成化壬辰沒于嘉靖乙未與夫人合葬于連山牛首里兌坐震向原有四男郡守錫次別提鍾次 贈參判鎬次護軍鎬郡守繼子縣令殷輝別提子應輝信輝彥輝之輝女韓守佑及策權通李明秀參判子大司憲絀輝縣令殷輝別提立輝察訪公輝女李欽蔡有根護軍子振輝重輝監縣復輝女李廷孝李夢瑞殷輝女正字姜燦宋爾昌應輝子大生達生信輝女李欽權通子夢龍李明秀子友善女金贊秀繼輝子參奉長生女鄭起溟立輝子吉生善生蔡有根子泓女尹世貞重輝子晚生女呂最復輝子泰生慶生長生子驥集樂噫公自少業文性厚行備宜若大施於世而不得焉種德於後昆而若是其蕃昌終以孫大憲貴追 贈兵曹參議卒封淑夫人豈無報歟公沒後四十九年孫殷輝略述顯末以識謹按舊表剝缺惟恐久益磨滅不啻以孫曾之貴贈職至今未有顯刻故後孫齊議改樹新石重鐫原文而府君世系子孫詳在上世諸碑後可徵今不可追錄仍識其下如此

贈通政大夫兵曹參議行通訓大夫珍山郡守金公之墓
淑夫人靈山辛氏 附左



김중윤 묘표

3. 김중윤(金宗胤) 묘표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거정터

연월일 | 서기 1583년(선조 16년, 계미)

찬자 | 김은휘(金殷輝)

서자 | 미상

비신 | 높이 | 108cm

폭 | 45cm

두께 | cm

자경 | 전면 | 5·7cm

음기 | 2cm

석질 | 대리석

김중윤 묘표는 대리석 비신에 연잎을 덮어 놓은 형태의 비머리를 조각하고 사각 좌대인 농대석에는 연꽃을 상면에 조각하고 옆으로 상안을 조각해 놓았다. 묘표의 전면에는 묘표 내용을 대자로 새겨 놓았고 후면에는 음기를 새겨 넣었다. 오랜 세월의 풍우로 자획이 마모되어 묘 옆에 오석으로 정묘년에 새로이 묘비를 세워 놓았다.

김중윤의 광산인으로 자는 종지로 좌의정 광산부원군 국광의 손자이고 극뉴의 아들이다. 벼슬은 진산 군수를 지냈다. 손자인 대사헌 계휘가 귀하게 되어 병조 참의를 증직 받았다.

* 李鐵根 墓表

(前面)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李公之墓

貞夫人全州崔氏之墓。

(陰記)

公姓李諱鐵根字不拔加平人考諱亨孫精忠出氣敵愾功臣嘉善大夫嘉平君諡平胡公王考諱多林 贈純忠積德補祧功臣正憲大夫兵曹判書曾王考諱忱嘉靖大夫都評議事妣禹氏順安縣令元球之女正統己巳三月丙午生公以勲臣之胃早登宦途行年三十階至通勲大夫歷京畿水運判官抱川縣監東部司饗二司主簿辛亥以忠州判官領軍赴北征回程奔母喪服闋除珍山郡守三年又丁父憂喪畢出爲鳳山郡守第五年癸亥以病棄官歸至金郊驛四月己未下世享年五十五逾年甲子正月丙寅窆于連山縣西天王洞震坐兌向之原距先塋僅百步公性事親孝待友信居官莅事恪謹匪懈字牧多年靡有一貶如公者豈易得歟公聚全州崔氏忠義衛喜輔之女生二男二女長曰長生少年擢武科驟陞堂上丙寅拜咸鏡南道節度使次曰長卿中乙卯進仕女長適忠順衛鄭世臣次適獻陵參奉鄭麴臣節度使聚僉使李起敬如生一男一女男曰震授承仕郎進仕聚忠義衛趙壽延女生二男曰謙(顯)曰頤忠順衛生二男一女男曰彭齡曰億齡皆幼以長生節度使追 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嘉城君崔氏封貞夫人崔氏性和順謹厚因夫卒悲悼得病不起丁卯閏正月甲子卒享年五十八其年十二月庚寅祔葬于天王洞原銘曰

官不高年不永天其以餘貽後世耶不然何其子孫之賢耶其將繩繩而久者歟天王洞有玄宅於萬年積慶德。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 申用漑 撰。

皇明正德三年十月 日。

* 이철근 묘표

(전 면)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이공지묘.
정부인 전주 부 최 씨 지 묘.

(음 기)

공의 성은 이씨요, 이름은 철근이요, 자는 부발이요, 가평인이다. 아버지는 형손이니, 정충출기적기공신 가선대부가평군으로 시호는 평호공이요, 할아버지는 다람이니 순충적덕보조공신 정헌대부 병조판서를 증직하였고, 증조는 침이니, 가정대부도평의사이다. 어머니는 우씨인데, 순안현령 원구의 따님으로 정통 기사년 3월 병오생이다. 공은 혼신의 장자로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나이 30에 품계가 통훈대부에 이르르고, 경기도 수운관관과 포천현감과 동부 사용이사의 주부를 역임하였으며, 신해년에 충주 관관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북정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친상을 당하여 복을 마쳤다. 그 뒤에 진산 군수에 제수되고, 삼년만에 다시 부친상을 당하였고, 상이 끝난 후에 봉산 군수가 되었으나, 5년째 되던 해인 계해년에 병을 얻어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금교역에 이르러 4월 기미에 세상을 하직하니, 향년 55세이었다.

해를 넘겨 갑자 정월 병인에 연산현 서쪽 천왕동 진좌 서향 언덕에 장례하니, 선영과는 겨우 백보 사이였다. 공의 성품은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 하고, 친구 대접하기를 신의로서 하며, 벼슬하며 일을 처리함이 성실하고 착실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목민관을 여러해 동안 하였어도 한번도 문책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공과 같은 이를 어찌 얻기가 쉽겠는가. 공이 전주 최씨 충의위 회보의 따님을 취하여 2남 2녀를 두니, 장남은 장생으로 소년에 무과에 뽑혀 일찍 당상으로 오르고, 병인년에 합경도 절도사를 배수하였고, 차남 장경은 을묘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장녀는 충순위 정세신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현능 참봉 정국신에게 출가하였다. 절도사는 침사 이기경의 따님을 취하여, 1남 1녀를 두니, 아들은 진이요, 승사랑에 제수되었다. 진사는 충의위 조수정의 따님을 취하여 2남을 두니, 겸(개명호)과 이이다. 충순위 2남 1녀를 두니, 아들 팽령과 역령은 어리다. 장생이 절도사이었으므로 공을 가선대부 이조참판겸의금부사 가성군으로 추증하고, 최씨는 정부인으로 봉하였다. 최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양순하며 근면하고 온후하여, 부군이 돌아가자 슬픔 끝에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고, 정묘년 윤정월 갑자에 돌아가니, 향년 58세였다. 그해 12월 경인 천왕동 묘에 합장하였다. 명하여 가로되,

벼슬도 높지 않고 수명도 길지 못하니, 하늘이 그 남은 경사를 후세에 끼쳐주었는가. 아니면 어찌 그 자손들이 어질겠는가. 장차 면면이 이어져 오래 갈 것이다.

천왕동에 무덤이 있으니, 만년토록 영원히 경사스런 덕을 쌓으리라.

자헌대부 예조판서겸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신용개 찬하다.

황명 정덕 3년 10월 일.



이철근 묘표



이철근 묘표

2. 이철근(李鐵根) 묘표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청동골

연월일 | 서기 1508년(중종 3년, 무진)

찬자 | 신용개(申用溉)

서자 | 미상

비신 | 높이 | 128cm

폭 | 62cm

두께 | 21cm

자경 | 전면 | 5cm

음기 | 1·5cm

석질 | 대리석

이철근 묘표는 조선 초기의 형식에서 조금 발전한 형태로 대리석 비신과 복연엽 비두를 하고, 연화 무늬와 상안이 조각된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엔 묘표가 새겨져 있고, 후면엔 음기가 새겨져 있다.

이철근은 가평인으로 자는 불루이고 1449년에 태어나 1503년에 세상을 떠났다. 2남 2녀를 두었으며 장남은 이장생이다.

일찍 조정에 나가 30세에 통훈대부에 이르고 경기 수운관, 포천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1491년에는 충주판관으로 북정에 참여하였으며 진산군수, 봉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 宋文琳墓表

(前 面)

通政大夫承政院 左副代言宋公之墓

(陰 記)

公諱文琳·字·公礪山·····
 ·····左副代言·····月初一日·····
 ·····南·····世祖命·····恤使時·
 ·····
 ·····八年·····
 ·····公娶上·軍金興·女·原·
 ·····二女·····疾惡·
 ·····其守正不·
 ·····
 ·····先塋之原有村·
 ·····尋常朋友·
 ·····生之·
 ·····不聞耶·
 ·····
 ·····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宣城府院君盧思愼謹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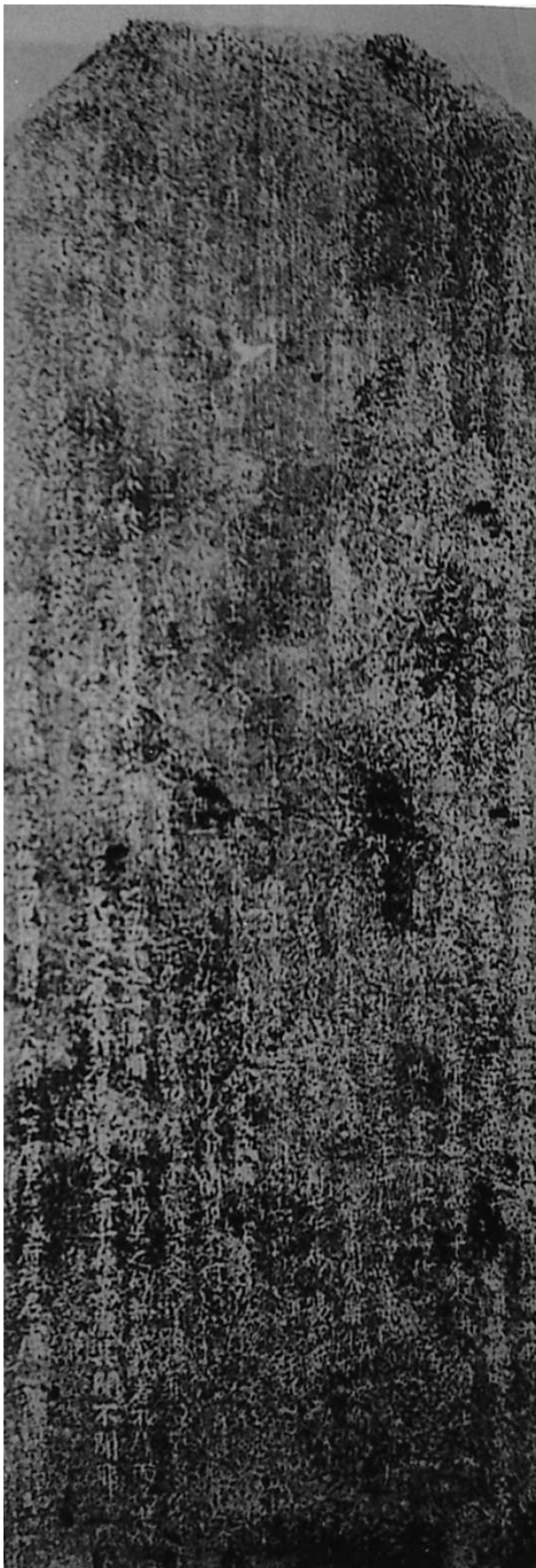
* 송문림 묘표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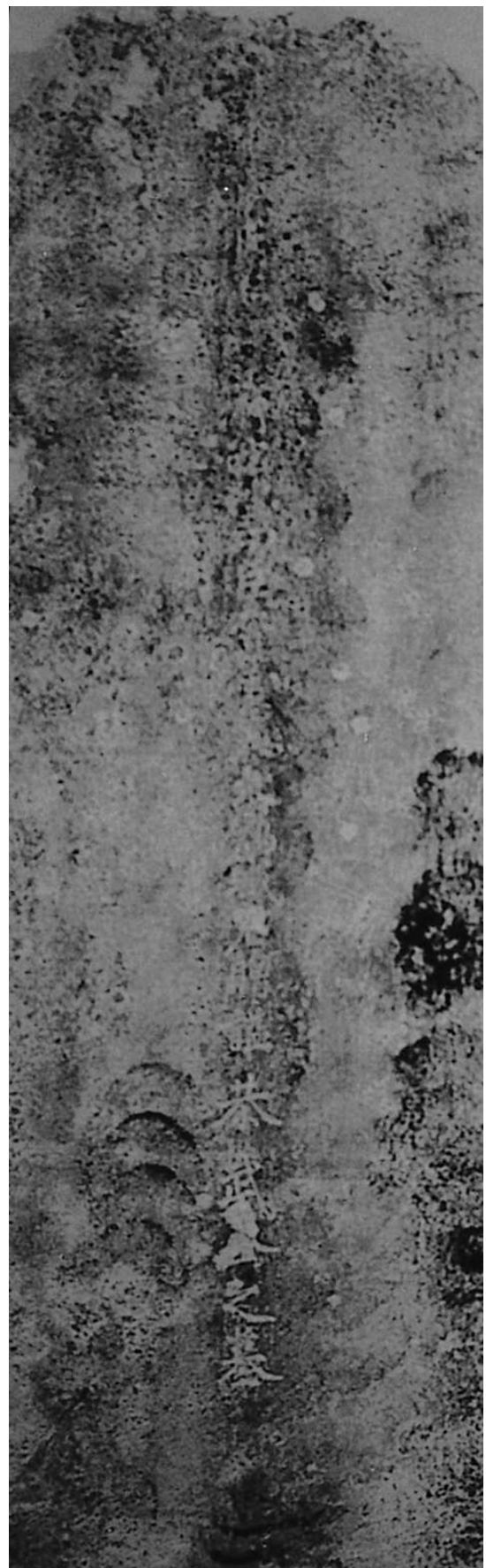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대언 송공지묘

(음기)

공회문림자공영산



송문림 묘표



송문림 묘표. 음기



송문림 묘표

1. 송문립 묘표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연월일 | 서기 1500년대

찬자 | 서거정(徐居正)

비신 | 높이 | 94 cm

폭 | 93 cm

두께 | 17 cm

자경 | 1·2 cm

석질 | 대리석

여산송(礪山宋)씨는 러말조선초(麗末朝鮮初)에 연산(連山) 화악리(花岳里)에 세거(世居)하기 시작하였다. 송서(宋瑞)의 아들인 윤번(允蕃)이 진잠(鎭岑)에 살다가 그 아들 전(典)이 화악리(花岳里)로 내려와 세거(世居)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윤번(允蕃)의 3녀(三女)가 고성인(固城人) 이민(李珉)에게 출가하여 고양리(高陽里)에 내려와 세거(世居)하게 되었고 전(典)의 따님은 기계인(杞溪人) 유효통(兪孝通)에게 출가하고 리(理)의 따님은 가평인(加平人) 이다림(李多林)에게 출가하여 청동리(靑銅里)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전(典)의 아들 인산(仁山)과 그의 아들 문립(文琳)이 벼슬길에 나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르고 그의 묘가 화악리(花岳里)에 있고 노사신이 지은 묘표가 세워져있다.

豆 豆

